

분실단말기 집중관리센터 운영 현황

'99. 4월부터 「PCS폰 주인찾아주기」운동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신세기통신과 PCS 3사가 참여한 가운데 분실단말기 집중관리센터를 개소, 운영해 오고 있다.

고 중 흥 / 사업관리실 신용정보팀장

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PCS3사는 지난 3월9일 분실단말기 집중관리센터 사업추진에 합의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분실한 PCS폰, 안쓰는 PCS폰, PCS폰용 충전기 및 배터리 등을 습득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국 2,798개소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고 배송하는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실단말기 주인찾아주기 운동”을 전개코자 '99. 4. 1부터 “분실단말기 집중관리센터”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을 시행하게 된 목적은 “분실단말기 주인찾아주기 운동”을 체계화함으로써 이동전화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 통신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이동전화 분실신고 건수는<표 1>과 같이 '98. 12월 현재 100만대에 달하며, 안쓰는 단말기는 '98. 8월말 현재 200만대로 추정되어 분실자의 고충 및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표 1〉 분실단말기 신고접수 현황('98. 12월 기준)

사업자	가입자수(만명)	신고건수(만건)	비율(%)
SK 텔레콤	597	48	8.0
신세기통신	214	17	7.9
한통프리텔	235	9	3.8
한 솔 PCS	141	7	5.0
LG 텔레콤	212	12	5.7
합 계	1,399	93	6.6

그동안 이동전화 분실에 대해 이동전화사업자가 주인을 찾아주는 방법은 각사 대리점에서 접수하여 본사로 송부하면 본사에서 주인을 찾아주고 있으나, 습득창고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습득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하고, 본사에서 타사의 분실자를 확인하여 주인에게 전달하는데 과도한 시간 지연 발생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센터는

〈표 2〉와 같이 공공기관인 전국 우체국망을 통하여 단말기 습득신고 창구의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습득신고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협회는 우체국에서 송부한 습득신고서와 단말기를 PCS3사의 고객관리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PCS폰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실질적인 운영체제로 분실자의 고통을 해소하고 있다.

’99년 4월말 현재 1개월 동안의 센터운영 현황은 〈표 3〉과 같이 일평균 365대가 회수되어 총 9,471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2,250대를 분실자에게 전달한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회수된 셀룰러폰 2,407대는 법적절차에 따라 습득신고자 또는 사업자에 전달할 계획이며 재활용품인 충전기 및 배터리는 고장난 이동전화와 함께 한국컴퓨터재활용협회등과 연계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할 계획에 있다.

〈표 3〉분실단말기 집중관리센터 운영 현황 (’99. 4월)

구 분	P C S	셀 룰 러	재활용품	계
입 고	6,532	2,407	532	9,471
출 고	2,260	-	-	2,260

* 재활용품 : 충전기, 배터리, 고장난폰 등

한편 협회(3471-1155)는 분실단말기 집중관리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우체국과 분실물센터, 각종 운수업체(지하철, 버스, 택시회사 등), 극장, 사업자 및 협회의 홈페이지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은품은 2만원 상당의 우리 농산물로써 협회가 PCS폰의 정상작동 여부를 판정한 후 정상작동 PCS 폰 신고자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99. 4월말 현재〈표 4〉와 같이 6,256명에게 지급되었다. 또한 PCS 폰, PCS폰용 충전기 및 배터리 신고자를 대상으로 경품권을 지급, ’99년 6월 30일 경품행사를 통해 E-F쏘나타(1등), 금강산여행권(2등), 폴더형 PCS단말기(3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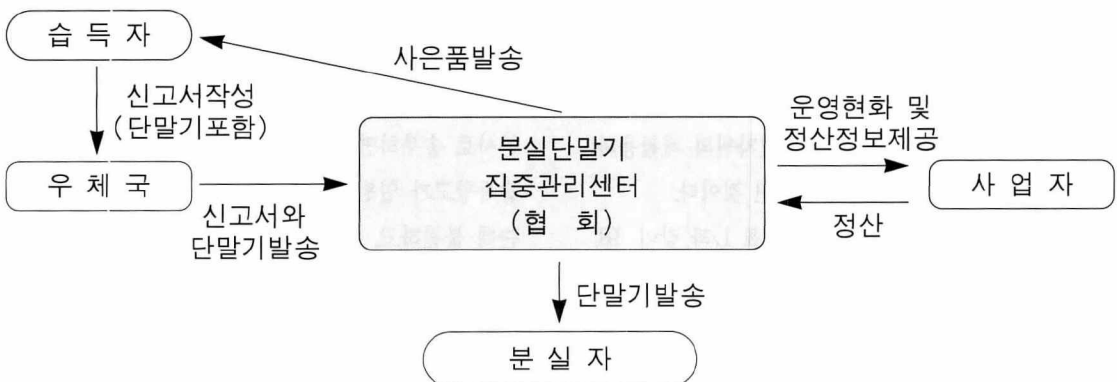
협회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한 결과 ’99년 5월 1일부터 신세기통신이 참여키로 함에 따라 기존 PCS 습득신고자와 동일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표 4〉사은품 지급 현황(’99. 4월)

구 분	꿀	참 기 림	고 추 장	합 계
수 량	2,486	2,350	1,420	6,256
금 액	44,748	44,650	27,690	117,088

(단위:개, 천원)

〈표 2〉 분실단말기 집중관리 업무처리도



앞으로 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사업자(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 신세기통신)는 “분실단말기 집중관리센터”를 더욱더

활성화 하여 전체 이동전화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국가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제고와 건전한 통신이용 문화정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

「전자화폐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기구인 전자화폐 연구회는 지난 5월 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자화폐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관련업계 9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국내의 전자화폐 시범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 및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전자화폐 사업의 모델을 유도하여 향후 국내 전자화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이재규 교수의 “전자화폐의 사업 모형 평가”라는 발표를 통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전자화폐 사업모형을 5가지 형태로 분류, 제시하고 각 모형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전자화폐 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전자화폐 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충남대학교 류재철 교수는 금융결제원 전자지갑 개발 추진현황 및 세부추진 역할별 분석을 통하여 향후 금융원 지갑의 기술적 분석은 물론 국의 전자화폐 추진 현황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금융원 전자화폐 시스템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제토의에서는 각 업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업계의 입장 및 현황을 발표하고 국내 환경에 바람직한 전자화폐 모델 발굴 및 전자화폐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하고 향후 전자화폐의 사업방향, 제도개선, 서비스 개발 등 거시 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협회는 향후 본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자화폐 추진 협의회도 구성하여 전자화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